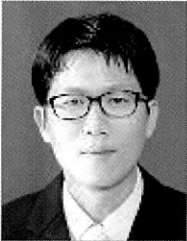


생산성 향상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김 효 빈 지역소장
(주)동우
계열화사업본부 사육팀

2012년은 바야흐로 양계산업의 과도기 그리고 엄동설한의 계절인 듯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다양한 이유로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국제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시장도 좋지 못한 상황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표 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10	2011	2012	2013
세계	5.3	3.9	3.5	3.9
선진국	3.2	1.6	1.4	1.9
신흥개도국	7.5	6.2	5.6	5.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12

우리 양계현실을 보면 생산비 중 약 60%~65%가 사료가격이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이상기온 현상으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이 되어 주요곡물 생산지역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미지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국제 곡물 생산량이 급감은 물론 중국은 수입국으로 변했고 곡물시장에 투기적 자금까지 유입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표 2〉 곡물 가격 변동 현황

구분	최고치 ¹⁾	2008년 평균	2011년 평균	2012년 (1~6월)	2012년 7월 ²⁾	2012년 7월 20일	변동폭(7월 20일 기준)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밀	470	294	261	236	310	347	43.8	41.1
옥수수	325	208	267	248	301	325	36.7	20.6
대두	646	453	484	495	604	646	23.6	28.7

※주 1) 밀 2008년 2월 27일, 옥수수 2012년 7월 20일, 대두 2012년 7월 20일 2) 7월 1일~20일까지의 평균 가격임.
※자료 : 시카고 상품거래소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이유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고자 함에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target', 즉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target'은 실현 가능한, 즉 손을 뻗어서 닿을 듯 말 듯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사료비와 기타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필드에서 느끼는 것! 잘 안 되는 것! 이것만 하면 생산성 향상이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한다.

1. 사료섭취량, 음수섭취량을 정확히 알자!

〈표 3〉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료섭취량과 음수섭취량을 알아도 계군 상태, 계사환경 그리고 관리가 편안해질 수 있다.

가. 평균적으로 사료섭취량 : 음수섭취량 = 1.00 : 1.90

→ 주령이 갈수록 사료섭취량에 대한 음수섭취량 비율이 감소한다[2.0(1주령) → 1.95(2주령) → 1.90(3주령)].
(계군 상태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음)

나. 투약기 및 수량계 설치를 의무화하자

→ 사료량보다 체크가 쉬워 음수섭취량 파악으로 현재 계군 상태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 음수섭취가 많아도 적어도 문제이다.
(많으면 계군 탈수 및 누수 점검, 적으면 계군 이상 및 막힘)

다. 일일 사료 섭취량은 체중의 약 10% 정도로 예상하면 된다

→ 계군 상태가 좋을 시 +1~2% 높게 예상을 하면 됨.

예) 평균체중이 약 1.30kg이며, 섭취량은 약 130g으로 예상

〈표 3〉 국내 성장목표 예(암수혼합사육)

일령 (d)	생체중 (g)	일당증체량 (g/b/d)	주간 평균 증체량 (g/b/w)	사료섭취량 (g/b/d)	누적 사료섭취량 (g/d)	사료요구율	물섭취량 (g/b/d)
1	40	18			0	0.00	0
2	58	16		15	15	0.26	30
3	74	18		18	33	0.45	36
4	92	21		21	55	0.59	42
5	113	23		24	79	0.70	48
6	136	25		28	107	0.79	55
7	161	28		31	138	0.86	62
8	189	30	22	35	173	0.92	69
9	219	32		39	212	0.97	76
10	251	35		43	255	1.01	84
11	286	37		47	302	1.06	92
12	323	39		52	354	1.09	100
13	363	42		56	410	1.13	109
14	404	44		61	471	1.16	118
15	449	54	41	75	546	1.22	146
16	502	56		80	626	1.25	155
17	558	58		85	712	1.27	164
18	617	61		90	802	1.30	173
19	678	63		96	898	1.33	183
20	741	65		101	999	1.35	192
21	806	68		107	1,105	1.37	202
22	874	69	63	110	1,216	1.39	209
23	973	70		114	1,330	1.41	216
24	1,013	71		118	1,448	1.43	222
25	1,084	72		122	1,570	1.45	229
26	1,157	74		126	1,696	1.47	236
27	1,230	75		130	1,826	1.48	243
28	1,305	76		134	1,960	1.50	250
29	1,381	77	74	139	2,099	1.52	258
30	1,459	79		143	2,242	1.54	266
31	1,537	80		148	2,390	1.55	274
32	1,617	81		153	2,543	1.57	282
33	1,698	82		157	2,700	1.59	290
34	1,780	83		162	2,862	1.61	298
35	1,863	84		167	3,029	1.63	306
36	1,948	87	82	175	3,204	1.64	319
37	2,035	87		177	3,381	1.66	322
38	2,122	87		179	3,560	1.68	325
39	2,209	87		181	3,741	1.69	328
40	2,297	87		183	3,924	1.71	331
41	2,384	87		185	4,109	1.72	334
42	2,471	87		188	4,297	1.74	337
43	2,558	87	87	190	4,486	1.75	339
44	2,645	87		192	4,679	1.77	343
45	2,732	87		195	4,874	1.78	347
46	2,818	87		198	5,072	1.80	351
47	2,905	87		201	5,273	1.81	355
48	2,992	87		204	5,476	1.83	359
49	3,079	87		207	5,683	1.85	364
50	3,166	87	87	210	5,893	1.86	368

※참조 : Ross 308, Arbor Acres Plus, Lohmann indian River, Hubbard Classic, Cobb 등 모두 이 데이터에서 큰 유의차가 없음.

라. 예시

- 이름 : 오미현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블로동 1004
- 사육규모(생존수) : 육계 40,000수
- 일령 : 23
- 평체 : 약 1.05kg
- 계절 : 가을
- 계군 상태 : 중
 - 일일 섭취량 : $40,000\text{수} \times 0.105\text{kg}(\text{수}/1\text{일}) = \pm 4,200\text{kg}$
 - 음수 섭취량 : $4,200\text{kg} \times 1.9\text{배}/1\text{일} = \pm 8,000\text{l}(8\text{t})$ 이며, 시간당 $8,000\text{l}/24\text{h} = \text{약 } 330\text{l}$ 임.
- ※ 오전/오후 그리고 계절별 차이는 있을 것
이나 크게 벗어나지는 않음.

‘모두 아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감으로만 알지 수 치로 물어보면 약 60% 이상은 모르는 것 같다.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훨씬 나올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예상 사료량(반포량 최

소화), 약품 사용시 용량 및 시간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농장 대표님들이 하루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것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져 조금씩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2. 약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우리나라는 대닭 사육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항생제 잔류검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콕시듐제를 사료에 첨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플로르페니콜은 금지가 되고 있어 질병 발생 시 약품 처방에 있어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전문수의사에게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되며 휴약일 준수는 필수이다. 필자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필드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져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다.

〈표 4〉 필드에서 상용되는 약품 현황

성분	효능	휴약기간	비고
타이로신, 티미코신	호흡기 치료	5일	초기에 효과 극대
플로르페니콜	대장균증 치료	5일	
암피실린, 콜리스틴	장염 치료	1~5일	혼합사용 상승효과
설파제, 트리메토프림	장염, 대장균, 콕시듐	5일	복합제품
암프로리움	콕시듐제	1일	소장(만성)
톨트라졸리		16일	맹장(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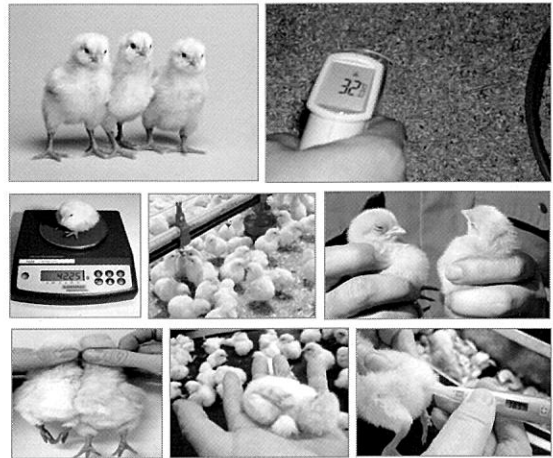
〈표 4〉는 필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약품성분들인데 농장 대표님들이 약품성분에 대해 알고 계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적어보았다. 동일한 성분인데 회사마다 제품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사용하여 약품비가 상승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곤 한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먼저 체온을 재고 해열제를 포함하여 처방전을 내린다. 닭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된다. 호흡기 발생 시 해열제 및 호흡기 약제를 투여하면 효과가 있고 호흡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닭은 2차 감염(대장균 증) 발생이 당연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기 전에 이런 흐름들을 알고 대처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폐사가 증가해야 그때서야 계군 상태를 아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말한 사료섭취, 음수섭취량을 알면 쉽게 질병예방 및 처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약품비 절감 효과 또한 당연하다. 이는 농장 대표님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 기본적인 습관을 갖자!

초기관리가 출하성적과 비례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입추 시 체중/7일령 체중(1일령 병아리 체중비 4.5배~5배), 바닥온도, 소량의 사료량, 항문온도, 병아리 길이, 활력도 등을 측정하는 습관을 가지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여 관리하



36~45주령 병아리 평균 19.5cm~21.5cm
3초 후에 바로 일어나기
40.6°C/106°F

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더 해봤으면 한다.

최근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닭고기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지는 오래고 업계와 농가들의 웃음이 사라져 근심이 눈에 많이 보인다. 담당자로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불황타개를 위해서는 누가 하나가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업계, 그리고 농가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서로 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잠시 쉬어가는 충전의 시간이라고도 하자. 안 그러면 우리가 왜 트랙 위에 올라가 있는지 모른 채로 달릴 수 있다. 모두 이점들은 서로 인식해서 團生散死(단생산사) 했으면 한다.